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쉼' 부산서 피날레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성파 대종사, 죽비로 울림 전해
비보잉·전통음악·미디어아트 등
고운사·청년 전법 기금 전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주최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 이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회향했다. 상월결사는 공연에 앞서 고운사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와 청년 전법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주최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이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회향했다.

이번 공연은 의정부 초연을 시작으로 구미, 논산훈련소를 거쳐 마지막으로 열린 다섯 번째 무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새로운 전법의 형태로 주목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들과 재가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쉼'이라는 휘호를 내린 종정 성파 대종사는 직접 공연장에 참석해 공연 도중 객석에서 죽비 삼성을 울리며 극적인 울림을 선사했다. 성파 대종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주법계는 수와 금·목·토·화·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면 결국 마(魔)로 변하게 된다"며 "이번 산불은 불의 과잉이 불러온 자연의 경고이며, 우리는 이로부터 '용심(用心)'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수행이며 전법이고, 불교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몸짓"이라며 "부산에서의 회향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잠시 멈춤'을 주제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 '논스톱(NONSTOP)'에서는 비보잉과 합창을 통해 디지털 과잉과 중독에 물든 현대인의 삶을 표현했고, 2장 '스크림(SCREAM)'은 소리꾼의 절절한 창과 현대무용으로 내면의 고통과 분열을 형상화했다. 3장 '퍼즈(PAUSE)'에서는 공연장이 암전되며 완전한 정적이 연출했다. 이때 성파 대종사가 죽비를 세 번 울리며 깊은 '깨어있음'의 순간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4장 '플레이(PLAY)'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회복과 자유, 기쁨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대에는 최예림 소리꾼, 길대호 가수, 김여주 무용수, 아역배우 문성구, 상월비보이팀, 상월청년합창단, JH콰이어 등이 참여해 불교정신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풀어냈고, 비보잉과 전통음악,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이색적 구성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큰 감동을 전했다.

공연에 앞서 고운사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와 청년 전법을 위한 기금 전달식도 열렸다. 범어사 본·말사에서 고운사에 5000만원의 복구 기금을 전달했고, 문화공연 후원금으로 범어사와 통도사가 각각 5000만원, 원허 스님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동국대 WISE캠퍼스 소속 6개 불교동아리에 6000만원, 범어사 관할 11개 대학에 1억 1000만원, 통도사 관할 3개 대학에 3000만원의 전법지원금도 함께 전달됐다.

경봉 대종사 추모다례…"선풍의 큰 스승, 그 뜻을 잇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2600만원
정도 스님 편찬 연구서 봉정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국 근현대 선풍(禪風)의 큰 줄기를 이룬 경봉당 정석 대종사의 열반 43주기를 기리는 추모다례가 6월 22일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는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등 원로 대덕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비구·비구니 대중, 전국 문도 스님, 유족, 신도들이 함께 자리해 스님의 덕화와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헌다와 파산게 봉독에 이어 진행된 재단법인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2명 등 총 14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아울러 통도사 승가대학에 400만원, 보광선원·호국선원·무위선원 등 수행처와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는 800만원이 지급돼,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증서는 문도회장 원산 스님이 수여했으며, 장학생을 대표해 동국대 대학원 과정의 법연 스님이 받았다.

특히 이날 정도 스님이 편찬한 〈한국 근현대선 연구-경봉 대선사 삼소굴 일지〉(맑은소리 맑은나라)도 봉정돼 의미를 더했다. 본서는 경봉 스님이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인 '삼소굴일지'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기, 불교계의 변화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기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시조문학 확산과 세계화 위해 다함께 진력"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
6월 21일…대상에 김소해 시인

시조문학의 대중화와 정형시의 전통 계승을 위한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1일 경남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봉행됐다.〈사진〉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송 스님)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전국 시조시인과 문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문학의 창작 저변 확대와 시대정신을 담은 시조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파시조문학상 제정자인 중봉 성파 대종사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 최성아 운영위원, 유자효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대상 수상자 김소해 시인을 포함한 각 부문 수상자들과 사부대중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성파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시조는 우리말과 우리 글로 시작된 문학으로, 한국문학의 뿌리라 할 수 있다"며 "한자가 전래된 이후 불교에서 이를 우리말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시조가 등장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이미 언해본을 통해 시조문학의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조는 민족문학의 근본이자 문화유산인 만큼, 앞으로도 시조문학의 확산과 세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성파 대종사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시작된 성파시조문학상이 42년간 계승돼 왔다"며 "시조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민족 문학의 갈래로서, 이제 그 꽃을 피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에서는 김소해 시인이 〈서너 백년 기다릴게〉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시인은 "시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있다"며 "그 사랑이 지나쳐 달뜨는 밤마다 헤매던 길 중간에 이 상이 있어 기쁘다. 시조의 길을 더 헤매며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봉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월 23일
6개 종교별 의례로 공동 추모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UN군 전몰장병과 한국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6월 23일 부산 남구 UN기념공원 내 위령탑에서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6대 종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추모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의 헌화 및 참배로 시작됐으며, 이어 2부 본행사에서는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묵념, 내빈 소개,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UN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종교인들이 함께 정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종단별 추도식에서는 불교, 성공회(NCCK),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단 대표들이 순서에 따라 기도문과 추도사를 봉독하며 엄숙한 의례를 진행했다. 유엔군 11개국 2300여 위 전몰장병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한국전쟁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매년 유엔기념공원에서 6대 종단의 전통의식을 통해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며, 종교 간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5년도 부산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시민참여와 추모의식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연등회 '우수'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서
"한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가능"


올해 부산연등회에서 선보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장엄등.

불교문화 장엄등으로 시민과 소통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6월 2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 2층에서 열린 '2569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는 연등회 집행부와 사찰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연등회의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전에 수합된 실무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와 아이디어상 수상자도 함께 확정됐다.

이날 수상자는 △우수단체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부산시장상) △전통등강습회 최우수작 배기매 불자(옥천암) △아이디어상 1등 곽은영 기자(e붓다) △아이디어상 2등 송순애 불자(불교TV 염불공양회)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박관수 과장(한마음선원 부산지원)는 "우리 신도님들은 늘 한마음으로 움직인다. 준비 과정과 행사 당일 모두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가능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부산연등회 행사 준비를 시작한 지난 2월부터 각 분야 실무자들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준 덕분에 모든 일정이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함께해준 모든 분의 신심과 원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늘날 평화는 호국영령 희생 덕분"

진여원, 진여호국영령위령재
6월 19일, 화명 현충공원서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6월 19일 부산 북구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7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남보타월 봉행위원장(진여원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7년 동안 진여호국영령위령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 덕분"이라며 "진여원의 작은 노력이 유가족과 호국영령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범 추진위원장(부산시 북구 구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이번 위령재가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 '제1회 금강경 독송회'

13개 사찰·300여 명 동참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20일 부산 대광명사 대광명전에서 '제1회 우리말 금강경 독송회'를 봉행하고, 재가 하안거의 문을 열었다.〈사진〉

이번 독송회는 올해 처음 참여한 해동용궁사를 비롯해 대광명사, 미타선원, 홍법사, 혜원정사, 관음사, 안국선원 시원암, 불암사, 해광사, 호국금련사, 내원정사, 대연정사, 원오사 등 13개 사찰이 함께하며, 약 3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0여 분간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목종 스님은 "금강경은 자성을 밝히고 번뇌를 끊는 수행의 핵심"이라며 "우리말 독송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히 마주하고, 내면에 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 고통 원인 다스리는 길 제시"

안양규 동국대 교수, 북콘서트서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불교는 그 생각을 통제하고 초월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철학과 현대 심리치료의 접점을 탐구한 연구서 '불교와 인지치유: 역기능적 사고와 그 해결'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6월 21일 경주 더케이호텔 신관 남산홀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와 죽림회(회장 도연 스님)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핵심 개념으로는 '오취온(五取蘊)'과 '우파다나(取)'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몸, 감정, 사고 등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며 "이 잘못된 동일시를 끊어내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